

“매엽 인쇄 미래는 긍정적, 드루파 2008에서 신기술 대거 선보일 것”

슈라이어 하이델베르크 회장 고객 행사 프리젠테이션서 밝혀

독일 하이델베르크사의 슈라이어 회장(사진)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하이델베르크 고객 감사의 밤' 행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갖고, 세계 매엽 인쇄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한편, 이 분야에서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프리젠테이션의 요약내용이다.



심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성과들이 여러 부문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쇼트 잉킹 유니트인 애니컬러, 스피드마스터 XL 105라는 신개념의 인쇄기, CIP 기술, 모듈식의 개방형 워크플로 프로그램인 프리넥 소프트웨어들을 통한 인쇄사 통합 등이 그것이다.

하드롱 전지 규격 VLF 인쇄기, 내년 드루파서 볼 수 있을 것

드루파 2008 계획을 점검한 결과

세계 매엽 시장 점유율 40%

하이델베르크의 판매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7% 증가한 38억 유로로 이 가운데 아시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에 달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해 온 하이델베르크는 현재 전 세계 매엽 인쇄 시장에서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등 선두 인쇄 매체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인쇄기 뿐만 아니라 제품 품목에는 제판 설비, 후가공 설비 및 모든 인쇄 공정을 통합시키는 소프트웨어들도 포함된다. 또한 하이델베르크는 다양한 부품과 인쇄재료, 중고 인쇄기 및 서비스,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를 통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2004년 이후 하이델베르크는 매엽 인쇄기 관련품이라 할 수 있는 핵

매엽 인쇄의 미래는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패키징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엽 인쇄 시장에서 하이델베르크는 CD 102와 차세대 인쇄기인 스피드마스터 XL 105를 보급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어왔으며, 내년에 있을 드루파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완성으로 VLF(Very Large Format :145 및 165cm)의 하드롱 전지 규격의 인쇄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인쇄기는 전 세계적 판매망을 갖고 있는 제품의 패키징 인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LF 인쇄기 생산을 위해 이미 지난 5월에 비슬로호-발도프 공장에 4천5백만 유로를 투자해 설비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오는 9월에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 이외에도 애니컬러 기술은 잉킹의 안정성과 인쇄의 일관성, 그리고 가장 짧은 작업 준비시간 부분에서 최고점까지 개발된 상태다.